

		번호: PO-MA-023							
제 목	개인의 행복지수 수준과 결정 요인 The Level of Happiness Index and Determining Factors								
저자 및 소속	<p>추홍규1), 전진호2), 엄상화2), 김성준2), 유병철3)          1)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2)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Hong-Kyu Chu1), Jin-Ho Chun2), Sang-Hwa Urm2), Sung-Jun Kim2), Byeng-Chul Yu3)          1) Inje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Public Health,          2) Inj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3) Kosi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p>								
분야	의료관리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	발표자		발표형식	포스터				
<p><b>목적:</b> 개인의 행복지수 수준과 이들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p> <p><b>방법:</b> 대상은 국내 거주 성인 남녀 1051명(남자 501명, 여자 550명)이었으며 연구기간은 2004년 3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였다. 연구 도구는 Rothwell과 Cohen의 행복지수 공식(formula for happiness)과 2003년 2월 발표된 한국형 자가평가수준도구(Korean Health Profile, KHP 1.0)를 이용하였다. 행복지수의 4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님(0)'부터 '매우 그려함(10)'의 11단계 척도로 답하게 하고 Happiness index=P1+P2+(5×E)+(3×H)을 이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PC (Version 10.0)과 SAS (version 9.1)을 이용하여 평균치 비교와 Spearman 상관분석, 단계별 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행복지수 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0.7893이었다.</p> <p><b>결과:</b>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2.0세였으며, 현재 흡연율 28.7%, 현재 음주율 40.7%,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율 52.8%, 평균 수면시간 6.8시간, 정기건강검진을 받는 율 57.6%, 질병의 과거력이 있는 율 30.5% 등이었다. 전체의 행복지수 평균치는 61.3점이었다. 행복지수의 평균치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math>p=0.002</math>), 연령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며(<math>p=0.151</math>), 중고졸이 초등졸이하, 대졸보다 낮았고(<math>p=0.002</math>), 경제적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math>p&lt;0.001</math>). 또한 흡연자(<math>p&lt;0.001</math>)와 음주자(<math>p=0.035</math>)에서 행복지수가 낮았으며, 운동군(<math>p&lt;0.001</math>), 아침식사를 반드시 하는 군(<math>p=0.003</math>),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군(<math>p&lt;0.001</math>),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군에서 높았고(<math>p=0.010</math>), 과거 질병력이 있는 군에서 낮았다(<math>p=0.003</math>). 단계별 중회귀분석 결과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모형에는 사회적고립감, 경제적수준, 전반적 건강상태 등 13개 변수가 포함되었으며 이들 요인이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설명력은 35.4%(<math>R^2=0.3538</math>)였다. 이 중 설명력이 가장 큰 변수는 사회적고립감(<math>R^2=0.1836</math>) 이었으며, 경제적수준(<math>R^2=0.0724</math>), 전반적 건강상태(<math>R^2=0.0515</math>)의 세 가지 요인이 행복지수의 30.8%(<math>R^2=0.3075</math>)를 설명하고 있었다.</p> <p><b>결론:</b> 조사 도구의 타당성 문제, 주관적 응답, 일부 지역 및 연령층에 국한된 연구 대상자 등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행복지수는 사회적고립감과, 경제적수준, 건강상태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개인별 행복지수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보다 신뢰할만한 행복 측정도구 완성이 요구된다.</p> <p><b>중심단어 :</b> 행복지수, 자가평가건강수준, 사회적고립감, 건강생활실천</p>									